

진공 펌프가 바꿔 놓은 나의 인생

한국 진공산업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생각하며

김종조 |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석좌교수

“정상은 내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루어 놓은 자신의 업적을 잘 마무리 하는 일 또한 성공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은퇴한 지금 새삼 느끼게 됩니다.

1984년 영국 에드워드의 한국총대리점으로 시작한 진공 펌프 사업은 한국진공학회가 창립되던 1990년 합작제안을 받아 들였고, 그 해는 성원에드워드가 창업을 준비하던 해였습니다. 진공학회 창립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의 큰 도움으로 진공의 불모지에서 오늘의 에드워드 코리아 주식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지난날들을 새삼 되돌아봅니다.

1980년 초부터 성장세를 타기 시작한 반도체 산업은 전문 인력이 필요했고, 삼성전자, LG반도체, 현대전자와 외국계 장비 회사에서 우수한 대졸 인력을 대거 채용하다 보니 근무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은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시기에 한국진공학회에서 만난 교수님들의 특별한 추천으로 인성이 좋은 제자를 합작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어 “좋은 직원이 좋은 회사를 만든다”는 회사 경영 목표가 훗날 회사의 성공을 가름하는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저에게 훌륭한 제자를 선뜻 추천해주셨던 교수님과 좋은 인연이 되어, 저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은 좁고, 기업은 우수한 소수의 졸업생만을 채용하고 있습니

다. 새로운 투자가 둔화되는 요즘의 대학은 전문 분야 별로 실무 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해야 하는 취업 전략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정년이 되어 에드워드코리아 대표이사 업무를 내려놓고 새로운 일상을 보낸 지 5년!

제주대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하며 개설한 CEO 특강에 선배, 동료 경영인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특강에서 만났던 졸업생들을 신입 사원으로 채용해주시고, 결혼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쾌척해 주신 고마운 동료 기업인들 또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제주로 내려가 학생들과 만나는 일과는 40여 년을 근무한 후 일선에서 물러나 자칫 내태하기 쉬운 저의 일상에 큰 활력이 되었고, 강의를 준비하며 오히려 저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고 얻게 되는 보람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한국진공연구조합의 송년 모임에 참석하여 진공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려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려는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KOVRA)의 노력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보람된 봉사로서 기꺼이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진공이나 진공기술은 육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대한민국의 산업분류표 상의 거의 모든 산업에 진공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저자 약력〉

김종조 회장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국제 경영학 석사 그리고 호서대학교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성원에드워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에드워드코리아 대표이사 회장 및 현 명예회장, 한국진공학회 부회장, 한국진공연구조합 초대 이사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및 현 명예고문, 세계 반도체 장비재료 협회(SEMI International USA) 이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대한민국 진공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청년 실업 해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으로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서 특정 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면 꼭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아니라도 진공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원에드워드를 창업할 때만 해도 미국진공학회(American Vacuum Society)와 “일본진공 산업전”이 새로운 진공기술을 접하는 좋은 기회였으나, 지난 몇 년 동안에 독일 라이볼트의 건식 진공 펌프 제조 사업을 한국 기업인 LOT Vacuum이 인수하였고, 프랑스 알카텔(Alcatel)사의 건식 진공 펌프 사업을 Adixen Korea(현 Pfelffer)가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Edwards 사의 건식 진공 펌프 생산 기지가 천안으로 이전하여 생산 중이고, 일본 Kashiyama의 펌프도 KC Tech과 합작으로 조립 생산 거점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대 진공장비 회사인 ULVAC 또한 한국을 전략적인 생산 기지로 삼아 큰 성장을 하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OLED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건식 진공 펌프 생산 능력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 8월 부산 벡스코에서 거행될 IVC-20에는 전세계에서 3,000여 명의 진공 관련 과학자들과 진공 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와 진공 기술의 산업 응용에 대한 대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진공산업이 그 큰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진공산업 관련된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발족시켜 많은 학생들에게 진공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의 꿈을 심어주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선배 기업인들의 숙명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진공학회에서 각 대학의 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진공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교육을 전수해 줄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소정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KOVRA) 회원사들은 자격증을 취득한 질 좋은 인력을 채용하여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 한층 격상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공산업의 일선에서 물려난 선배님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줄 수 있도록 한국진공학회와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이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결실을 맺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